

## P2-01

### 남녀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신체만족도가 섭식장애 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기남\*, 김영희<sup>1</sup>. 충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sup>1</sup>아동복지학과

최근 마른 체형과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적 풍조에 따라, 다이어트와 성형수술에 관한 관심이 젊은이들 가운데 고조되고 있고,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젊은 여성들 사이에 섭식장애 현상이 전세계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섭식장애에 영향 미치는 사회 심리적 요인으로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 우울증, 신체유형 만족도, 신체상 및 자아존중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면서, 섭식장애 현상을 가속화시킨다고 한다. 그동안 선행연구에 의하면 섭식장애 현상은 주로 여성들에게 해당되는 이상증세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에는 남성들도 성형수술과 바디빌딩에 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어,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의 경우 섭식장애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한 남녀에 따라 영향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조사 대상자는 충북대학교 남녀 대학생 560명(남 243, 여 317)이었고, 조사기간은 2002년 10월부터 11월이었다. 조사내용 및 방법은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신체유형 만족도 및 섭식장애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였고, 사용된 통계처리 방법은  $\chi^2$ , t-test, ANOVA, correlation 및 regression이었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아존중감의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3.03점이었고, 남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신체만족도에 있어서는 전체외모와 몸매, 얼굴생김새를 포함한 신체 12개 부위 중, 10개 부위에 있어 남자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또한 전체외모와 신체 각 부분의 만족도와와의 관계에 있어서, 얼굴 생김새와 몸매는 남녀 공통적으로 상관성이 높았고( $p < 0.0001$ ), 남자의 경우 가슴, 어깨 및 근육이, 여자의 경우에는臀, 허리 및 체중이 전체외모와의 상관성이 높게 나왔다( $p < 0.0001$ ). 섭식장애에 있어서는 '체중이 늘까봐 두렵다'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남자가 24.5%, 여자가 55.8%였고, '먹는 것에 집착한다'에 대하여는 남자가 28.3%, 여자가 47.6%로 나타나서, 총 10개 문항 중 8개 문항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각 증세의 해당자 빈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0.0001).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및 섭식장애 상관계수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남녀 모두, 세 변인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세 가지 변인(독립변인)의 섭식장애(종속변인)에 대한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stepwise regression 분석을 한 결과, 남자의 경우 살찌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 자아상의 두 개 변인이, 여자의 경우에는 살찌는 것에 대한 두려움, 긍정적 자아상 및 신체만족도의 세 가지 변인이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남녀 모두 자아존중감이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되, 남자의 경우에는 부정적 자아상 점수가 높을수록, 여자에게는 긍정적 자아상 점수가 낮을수록, 섭식장애의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여자가 신체만족도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P2-02

### 청소년의 식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경숙. 고신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청소년의 식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인과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산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를 각각 1개교씩 선정하여,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2003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가 직접 설문지에 기입하게 하였으며 총 1,200부 가운데 모든 문항에 완전히 응답한 1,022부(회수율 85.2%)를 통계처리 하였다. 식생활 태도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영양지식과 식이 자기 효능감 점수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영양지식이 좋을수록 식이 자기 효능감이 높았으며, 식생활태도가 좋을수록 식이 자기 효능감도 높은 점수를 보였다. 조사대상자의 영양지식과 식이 자기 효능감은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상관( $p < 0.05$ ,  $p < 0.01$ )을 보였다. 영양지식과 비만도는 음의 상관( $p < 0.01$ )을 보였으나, 영양지식은 식생활태도, 식이 자기 효능감과 양의 상관성을 나타내었고, 식생활태도와 식이 자기 효능감도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조사대상자의 성별, 영양지식, 식생활태도가 식이 자기 효능감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영양지식과 식생활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식이 자기 효능감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생활태도는 식이 자기 효능감에 직접효과만 가지고 있었으며, 식생활태도가 좋을수록 식이 자기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영양지식은 식이 자기 효능감에 직접효과 뿐만 아니라 식생활태도를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었다. 비만도는 직접효과는 없었으나 영양지식을 매개로한 간접효과만 있었다. 변수 중에서 식이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총 인과효과 크기를 비교하면 식생활태도가 가장 크고, 성별, 지식, 비만도 순으로 나타났다.